

###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6차회의

일시: 2011년 12월 26일 장소: 광주시 동구 대광식당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2011년 6차 회의가 26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 대광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방송보도부장 겸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주간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지면개선안과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 광주일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다.

# 내년은 선거의 해... 지역민 대변 견제·감시 역할 기대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회고시리즈 내용·구성 만족  
파장·대안 등 없어 아쉬움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사회면 사건·사고에 편중  
흔흔한 미담 더 발굴했으면

조미옥 (나주 봉황중 교사)



정치기사 중심 탈피한 1면  
다양한 내용·사진 '눈길'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인력양성센터장)



내년 있을 총선·대선  
소수 정당·무소속 배려를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스마트폰 음주단속 뺑방꾼'  
스마트폰 악용사례 좋은 예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위원장=지난 12월 12일 5차회의를 한 뒤 2주 만에 다시 모였다. 광주일보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새해가 다가온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만난 자리다. 광주일보가 보도한 올해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냉철한 의견 부탁된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올해 광주일보가 지역사회 소식과 현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한 것은 감사한다. 그런데 독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거론되던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의 이질감은 여전히 아쉽다. 자극적 제목 보다는 신중한 제목 선택이 필요하다. 여전히 사회면은 사건 사고가 지나치게 지면을 채우는 것이 문제다.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기사 발굴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경제면의 'BUY-광주·전남 운동'은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 소개와 안내가 있어 좋은 정보이며 생산업체 연결 및 제품 판매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2월20일 문화면 '2011 문화계 결산 ①미술'의 큰 타이틀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경쟁력 갖췄다"는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누구? 무엇?'의 경쟁력적인 상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 중 다른 나라(프랑스·터키)들이 벤치마킹, 장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던 '디자인비엔날레 새로운 전시 톨 모델이 되다'는 의미 전달이 나아 보인다.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비판적 안목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좋은 사례를 부각시켜 긍정적인 사고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신문의 긍정적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가는 약자에게도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12월13일 '장흥실고 학생들 자격증 573개 전국 최다' 기사는 지역학생들의 우수함을 동시에 드러낸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준비까지 되어 도운 선생님의 미담은 추운 겨울철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풍과도 같은 미담이었다.

환경특집면과 '남도의 길' 기획기사는 이 지역 특성을 살린 유익한 정보로써, 독자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사였으며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높게 평가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광주일보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은 1면이 정치적인 내용 중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시도했다는 점과 사진 한 컷으로도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한 편집 등은 고무적이었다.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인력양성센터장=내년은 '선거의 해'다. 광주일보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대정당만 다루지 말고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라는 것이다. 또 지역 특성상 자치단체 의회가 단체장과 같은 당으로 구성되면서 견제와 힘을 때가 있는데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더 나서주기 바란다. 기획기사는 광주일보의 큰 장점인 만큼 시대 화두인 교육과 복지 관련 기획 시리즈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대학 등록금·다문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12월16일 1면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 대선공약 이행 부실' 기사는 의미 깊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독자들에게 이행에 관한 소식 전해줄기 바란다. 최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열풍이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구속도 정국에 대응을 일으켰다. 온 국민의 관심인 만큼 관련 기사 게재를 기대한다.

▲김훈 (사행문화사업단 본부장)=12월23일 10면에 실린 '계단 없는 3.7km-장흥 우드랜드 말레길 개통' 기사를 보면 우드랜드 산책로가 계단 없이 설계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인휠체어를 밀고 숲속길을 산책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계단 없이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서 좋은 정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장애인휠체어가 다닐 수 있다가나 한자들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있어 아쉽다.

12월16일 7면에 실린 '스마트폰 음주단속 뺑방꾼'이라는 기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음주단속을 실시했던 지역을 알려줘 경찰이 예를 먹는다는 내용이다. 음주단속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임에도 스마트폰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밝혀 좋은 기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음주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불법 소지가 있는 지, 막을 방법이 없는 지 등의 내용은 없어, 자칫 독자들에게 음주단속을 피하는 앱이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기획 및 특집기사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구성·내용 모두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정치인들의 동정 보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할 수 없는 보도, 즉 현장 취재를 통한 실감나는 뉴스의 제공과 객관성을 담보한 정당한 비판이 부족해 보였다. 새해에는 이러한 기사가 많았으면 하는 주문이다. 오피니언면의 칼럼들은 예전에 비해 다양해 졌으나 아직 상당부분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기고 글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것도 시기 적절한 전문가 칼럼을 실어 흥미 유발과 지식 공유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12월20일 1면은 공교롭게도 많은 지역 신문이 '김정일 사망 한반도 정세 대격란'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같은 뜻을 폄하라도 조금 더 세밀한 제목이 나왔으면 한다. 스포츠면의 많은 부분이 연합뉴스로 채워지고 있는데 지역 육성 스포츠를 중심으로 신선한 기획시리즈를 만들어 지역 스포츠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 또 독자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미담 발굴과 보도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최병렬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벌써 한해의 끝자락에서이다. 1년 동안 광주일보의 수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주위 독자들로부터 칭찬과 조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특히 광주일보의 기획시리즈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 중 가장 많이 유익하다고 평가한 기사는 '남도의 길'이었다. 아름다운 길을 소개하면서 역사와 전설, 주위 환경과 생태까지 소개한 것은 독자들에게 지역 자산을 알리는 것을 넘어 문화유산을 기록한다는 가치까지 만들어 냈다.

또 한가지는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시리즈였다. '문화수도' 광주라는 말을 모든 시민이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각 나라의 문화도시를 소개하며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가꿔 보존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문과 답을 제시했다. 새해에도 다른 언론과의 차별성을 넘어 정점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분발하는 광주일보가 되길 바란다.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같은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기사나 건강, 레저, 교육 등 다문화에 걸쳐 기획 시리즈 등 여러

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기관장 등 동정 너무 많아  
칼럼 필진도 더 다양해야

최병렬 (광주시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독자 최고 인기 '남도의 길'  
지역 문화유산 기록 가치 커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다문화·소외이웃 더 배려  
희망 주는 신문 거듭나길

시도가 돋보였다. 특히 12월26일자 4회 지리산 장터목길을 끝으로 연재를 마친 '남도의 길' 시리즈는 정보 소개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함심 및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획으로, 광주일보가 지역성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광주일보사에 새해 바람이 있다면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무거운 이슈보다 따뜻한 기사들을 부각시켜 독자들이 광주일보를 펼쳤을 때 훈훈한 감정을 느꼈으면 한다. 계속해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역 언론의 참여를 다해가기를 바란다.

▲이철갑=한 해의 끝자락에 연재한 '회고 2011' 시리즈는 내용과 구성이 만족스러웠다. 다만 '회고'라는 기획에 걸맞지 않는 짧은 기사량과 첫화면 1면에 배치한 편집이 아쉽다. 또 회고성 기사라면 그 사건의 의미나 파장 등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 기사였으면 더 좋았을 듯 싶다. 새해는 대선 및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정치기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는 중요하다. 때문에 정치적 사건과 정치 후보들의 표명전달 기사에만 머물지 말고 유권자들의 여론과 지역민들의 바람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정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인권이 살아 숨쉬는 광주

### 1. 사회문화적 정착도모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육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및 가족지원
  - 센터수: 4개소(서·남·북·광산구)
  - 방문지도 서비스: 51명(408가정 1인당 4기주 2회)
  - 통·번역사: 9명(서구 2, 북구 4, 광산구 3)
  - 언어발달지도사: 5명(서구 1, 북구 2, 광산구 2)
  - 이중언어지도사: 3명(서구 1, 북구 1, 광산구 1)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확대
  - 기 관: 13개 기관(자치구 5, 관원단체 8)
  - 주요사업: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실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자존감향상, 아로마 비누만들기 전문과정, 자원봉사자사업 등
- 다문화가족자녀 인지·정서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만4세~초등학생 다문화가족자녀
  - 주요사업: 자녀의 기초학습 교육 강사지원, 가정학습지 지원

### 2.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지원
  - 인권지킴이 운영: 각洞별 이주여성 대표 92명
    - 인권침해상담, 실태조사, 의료·법률 긴급지원 등
-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파견
  - 양성규모: 결혼이주여성 10명

### 3. 광주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결혼 이민자 나눔봉사단
  -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연계 말벗해 드리기, 베트남 전통음식 대접등
  - 결혼이민자 제과제빵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후원
  - 우리고장 환경미화활동 등 우리동네발꿈이 봉사단
  -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통역서비스 지원

### 4.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추진사업

-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으로 안정적 정착도모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
  - 다문화자녀 인지·정서능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사회 육성
  -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운영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능력개발과 자립역량 강화 및 시민 인식전환 홍보
  -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교육
  -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홍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구 062-369-0073    ● 남 구 062-351-5432
- 북구 062-363-2963    ● 광산구 062-954-8004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